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 연구

- LX국토정보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adastral Cultural Heritage : Focusing on LX museum collection

김지현*
Kim, Ji-Hyun

Abstract

The fundamental basis for revitalizing cultural resources and developing content is national heritage(cultural property). In nation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is a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represents the uniqueness of history and tradition, identity, and changes in life. In the case of museums, the collections (a museum-owned cultural heritage) represe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In South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museum collections be registered and used in the Cultural Heritage Standard Management System so that cultural heritage can be managed and utilized in connection with academics, industry, and administration. However, due to a lack of awarene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eritage, the thematic classification chronology of the system was set mainly before the Joseon Dynasty, and a cultural heritage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national land inform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classification system for cadastral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 modern era when cadastral terminology was first used, using the cultural heritage owned by the LX Museum. Cadastral cultural heritag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although it is a field of specialized technology, the surveying or the production of it is not done by specific individuals only, and that while the production is professional, there are many educational aspects in its use. Therefore, unlike other specialized museum collections that are classified based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ir production methods, intended use, and creators, the classification method for cadastral cultural artifacts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dastral tools and the outputs. This classification follows a three-tier stages with reference to the items in the Cultural Heritage Standard Management System. This classification aims at the effective use of knowledge by categorizing concepts and systematizing the subjects of data into a series of orders. A saf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for cadastral cultural heritage can be established, and academic and socio-cultural interpretation of the collection is possible by this classification. Moreover, It is also expected to serve the basis for the national land information as well as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전문직(학예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 국가유산관리학 박사과정 LX Senior Professional(Curator), PH. D. Candidate, Dept. Cultural Heritage Convergence Stud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Heritage (sunflower5@lx.or.kr)

searching for the national land information research, planning a exhibition, and the field of education in museum.

Keywords: Cadastral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Classification System, Museum, LX museum

1. 머리말

문화유산¹⁾은 역사와 전통의 고유성, 정체성, 생활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박물관에 있어 소장품(소장한 문화유산)은 박물관의 기본 토대이자, 각 기관의 고유 특성을 대표한다. 우리나라 박물관은 유형의 문화시설인 문화자원으로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국·공립 443관, 사립 365관, 대학 105관으로 현재 913관 박물관이 등록되어있다.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소장품의 분야와 수량 등의 기준으로 1종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과 2종 자료관·사료관·유물관·전시장·전시관·향토관·교육관·문서관·기념관·보존소·민속관·민속촌·문화관 및 예술관, 문화의 집으로 구분한다. 종합박물관 이외의 등록 및 미등록 박물관의 소장유물은 대부분 주제별 특성을 갖는 전문박물관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등록 박물관의 문화유산 관리 방법은 국립중앙박물관 주관 하에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소장품을 등록 및 관리하도록 권장하여 통합·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장품을 주제별·재질별로 분류하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보존은 물론 소장품의 전산 관리 및 공유로 전시와 교육, 조사·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주제 분류가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 이전 문화유산 위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근·현대 문화유산 주제에 대한 분류체계가 미흡하다. 실정이 이러하다 보니 대부분 전문박물관의 성격을 갖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제

에 맞는 문화유산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 관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근·현대 자료 및 각 전문 문화유산의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박물관의 소장품을 보기가 어려운 여건상 주제에 맞는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의 연구가 세밀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는 유산을 보전하고 연구·활용하는데 기반이 되고자 지적측량 분야의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분류체계를 통해 지적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과 함께 근·현대 문화유산의 주제별 분류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근대 측량의 시작이자 '지적'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근대시기를²⁾ 기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국토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지적 문화유산 소장품 3,400점을 중심으로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먼저 국내 소장품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현황을 살펴보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분류체계 기준과 주제별 전문박물관 분류체계 연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지적 유산에 대한 연구현황을 보고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국내 소장품 분류체계 연구현황

국내 소장품에 대한 분류체계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에서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와 전산화를 위해 데이터 분류 체계 확립을 위한 표준화작업을 추진하면서이다. 2001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 시기에 소장품의 기능과 관리, 시스템의 공학적 접근방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 되었다. 2016년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클라우드 버전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상용화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민속 분야에 대한 분류체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시스템을 만들면서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각 박물관 소장품을 예전보다는 공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비공개로 보존하고 있는 열람 제한적이라는 한계로 인해 문화유산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진척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2.2. 전문박물관 소장품 분류체계 연구현황

전문박물관에 대한 소장품 분류체계의 시도는 2000년대 초 시작되었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용기민속박물관과 쇠대박물관의 용기와 자물쇠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2003년에 이루어졌다. 전문박물관에 대한 소장품 분류체계 연구현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분류시스템에 대해 전문박물관의 문화유산 분류에 대한 실효성 부족 및 필요성 언급하며 소장품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시도했다. 다음 장에서 각 분야별로 제시한 분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Table 1. Research Status of Classification Systems for Cultural Heritage Themes by Field

연도	문화유산 주제 분야
2003년	용기(용기민속박물관), 자물쇠(쇠대박물관)
2010년	공예
2012년	민속
2015년	근대 건축, 불전사물 목어(木魚, 성보박물관)
2018년	산업, 천주교
2020년	철도(철도박물관)

3. 국내 전문박물관 분류체계

3.1.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분류체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용도기능을 의³⁾, 식⁴⁾, 주⁵⁾, 산업생업⁶⁾, 교통통신⁷⁾, 전통과학⁸⁾, 보건의료⁹⁾, 과학기술¹⁰⁾, 미디어¹¹⁾, 기타자료¹²⁾로 구분하고, 소장품 보존관리를 위해 재질별 분류와 연구·활용을 위한 주제별 분류로 구분하였다.

3.2. 전문박물관 분류체계

3.2.1. 용기 문화유산

용기민속박물관은 소장품 2,000여 점의 용기를 용도(기능)별로 분류하였다. 김혜경(2003)은 용기의 분류방식이 토기, 용기, 민속 생활용품, 석조물, 작품, 해외유물로 생활 용기의 용도(기능)에서 재질별 분류만 되어있던 것을 건축 용재가 추가된 대분류로 재분류하였다. 중분류는 생활 용기를 식기, 일상, 의식 용기로, 건축 용재를 기와, 전(塼) 연가(煙家)로 중분류한다. 그리고 Table 2와 같이 소성 방법, 형태, 문양, 제작 기법에 따라 대, 중, 소분류 하였다.

Table 2-1. Classification System for Onggi (Korean Earthenware)

Source: Kim 2003.

구분	대분류
기존	용도(기능)별 대분류 ① 식품용기 ② 생활용기 ③ 의식용기 ④ 기타
제시	용도(기능)별 대분류 ① 생활용기 ② 건축용기
	용도(기능) 외 대분류 ① 소성방법 ② 형태 ③ 문양 ④ 제작기법

Table 2-2. Classification System for Onggi (Korean Earthenware)

Source: Kim 2003.

구분	중분류
기존	용도(기능)별 중분류 ① 저장용, 제조용, 기타 ② 실내생활, 운반용, 의약기, 굴뚝·연가, 기타
제시	용도(기능)별 중분류 ① 식기, 일상용기, 의식용기
	용도(기능) 외 중분류 ① 질그릇, 푸레독, 반용기, 오지, 옹기 ② 호형, 발형, 병형, 접시형 ③ 성형후, 시유후, 기타 ④ 베개 타렴, 찻바퀴 타렴, 치 타렴

Table 2-3. Classification System for Onggi (Korean Earthenware)

Source: Kim 2003.

구분	소분류
기존	용도(기능)별 소분류 없음
제시	용도(기능)별 소분류 ① 저장용/제조용/조리용/식사용/기타, 문방구/의약기구/ 오락 및 생활기구/운반용기, 신앙생활 용기/민속 및 궁중의식용/장사용 ② 기와, 전, 연가
	용도(기능) 외 소분류 ③ 손띠 문, 근개띠문, 목질띠 문, 압인 문, 음각 문, 인화 문, 수화 문, 손띠변형 문, 나뭇잎 붙이기 (대분류 ①, ②, ④의 소분류 없음)

3.2.2. 자물쇠 문화유산

첫대박물관은 2,000여 점 소장품 대다수가 자물쇠이다. 김혜경(2003)은 Table 3과 같이 소장품 분류기준을 주 소장품인 자물쇠의 다양한 형태와 문양적 특징을 고려하여 형태별, 재질별, 문양별, 용도(사용처)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옹기 문화유산이 기능을 대분류로 하고 문양을 소분류 한 분류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능적 측면에서 자물쇠의 단일 기능을 고려한 분류방식이지만 결국,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Table 3. Classification System for Locks

Source: Kim 200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	ㄷ자형, 원통형, 활대형, 함박, 오면, 측면 오각, 반달형, 북, 비밀, 선	-
	물상형	물고기, 거북이, 용, 죽절, 오리, 박쥐
	뽕침=격쇠	거북, 약과, 동자
재질	은철	수파련, 보상화, 봉수선화, 이화
	철, 황동, 백동, 주석, 은	-
문양	무문, 기하학문, 복합문	길사어문, 효제어문
	문자문	당초문, 매화문, 국화문, 모란문
	식물문	봉황, 학, 용, 박쥐, 물고기, 거북이
	동물문	
용도(사용처)	사랑방 가구, 안방가구, 부엌가구, 기타	-

3.2.3. 공예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은 공예를 유물(생활공예)과 무형문화유산(공예기술)으로 구분하였다. 유물은 토도자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복식공예, 초고공예, 지공예, 옥석공예, 화각장공예, 칠공예, 근대공예로 무형문화유산은 도자공예, 금속공예, 목칠공예(초공예 포함), 섬유공예, 피모공예, 지공예, 석공예로 분류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대분류에서 도자기, 금속, 나무, 사직, 피모, 지, 석, 유리/보석, 토제, 골각패갑, 기타로 재질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소장품에서 공예를 재질별로 분류한 것이다.

위주영(2010)은 공예의 분류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분류 표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의 메타데이터를 참조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공예기술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표준안을 도출하였다. 공예기술 관련 메타데이터 표준안은 다음 Table 4와 같다. CIMI13)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 표준 가운데 공통요소인 종목, 재질, 장르, 기능 보유자와 용도, 이명, 유래, 주 생산지, 제작 단계, 설명, 기법, 문화재 지정일자, 문화재 지정구분, 문화재 지정호수, 멀티미디어, 출처, 집필자 등 17개 항목이다. 하지만 표준안은 메타데이터 입력에 따른 기술적 입력기준으로 공예 문화유산의 분류체계에 참고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Table 4. Classification System for Crafts
Source: Joo 2010.

CIMI	국립중앙박물관	공예기술 제시
명칭	명칭	종목
재질	재질	재질
작가	작가/제작처	기능보유자 과거/현재/ 전수조교
-	용도(기능)	용도, 이명, 유래, 주 생산지, 제작단계, 설명
기술 공정	-	기법
-	문화재지정일자	문화재지정일자 (국가기정문화재 등록일)

3.2.4. 민속 문화유산

민속 유산의 민속분류기준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구 버전)에 민속품은 하나의 범주만 적용되며, 용도(기능)에 대한 분류만 있다. 김해희(2012)는 장르별 구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민속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분류는 대분류 민속유물(민속유물 및 전승자료)에서 중분류로 생업도구, 생활민예품, 목가구, 서화, 복식, 도자기, 기타로 장르를 세분화하였다.

3.2.5. 근대 건축 문화유산

근대 건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정수·양승희(2015)는 먼저 근대 건축 문화유산은 한국십진분류법(KDC)을 따르고 학문에서 미래 문화유산을 포괄하였다. 근대 건축 등록관리 과정을 고려하고 국가유산청 행정 시스템 분류 기반으로 박물관과 연계되어 호환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신규등록 가능한 근대 건축 문화유산을 고려한 분류기준으로 마련하였다.

위 기준을 토대로 대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한국표준산업분류, 정부기능분류법(BRM), 박물관 분류체계 등 각 항목을 종합하여 정치·외교, 산업·경제, 사회·생활, 문화·예술, 과학·기술, 군사·치안의 6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술을 문화예술로, 교육은 사회·생활로 분류한 방법에 따라서 근대 건축을 의식주 대분류로 하고 종교분야를 근대 건축으로, 문화유산 분류에서는 사회·생활 분야로 재분류하였다. 중·소분류는 국가유산청 용도별 분류를 기초로 건축법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에서 제시하는 용도 기능별 중·소분류를 설정하였다.

3.2.6. 산업 문화유산

구본태(2018)는 산업 문화유산에 대해서 과학관, 역사관, 기업박물관에 대한 분류를 언급하였다. 과학관은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기준(형태, 재질 등 물적 특성 분류 방법) 보다는 과학관법에서 적용한 과학 분야별 분류 방법을 사용였다. 국내 동산문화재에 속하는 산업유산의 공공적인 분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역사관 소장품은 국가유산청의 분류기준이 존재하지만 산업유산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산업 문화유산 분류기준에 대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용도(기능)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처럼 박물관에서 별도로 주제별 분류체계 병용해서 사용하는 혼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3.2.7. 천주교 문화유산

천주교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는 김정신(2013)과 김성태(2018)에 의해 시도 되었다. 분류기준은 대분류 체계는 중앙정부 기능분류체계(BRM)를 모델로 하며, 국제적인 분류체계와 범위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의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의 유물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용어 사용과 동산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공감될 수 있어야 하며 대, 중, 소분류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Table 5와 같이 대분류는 정치외교, 산업경제, 사회생활, 교육예술, 과학기술, 군사치안으로 분류, 중분류와 세분류는 기능별로 구분하고 장르별/유형별을 세세 분류로 하였다.

Table 5. Major and Subcategories of Catholic Cultural Heritage

Source: Kim 2018.

대분류	중분류
정치외교	법제/정치/외교/행정/대한제국/식민지/민주화/남북문제
산업경제	전통산업/제조-에너지/상업-금융/건설환경
사회생활	의/식/주/의례생활/사회신분/교통통신/체육/방재/종교
교육예술	학교교육/사회교육/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디자인/대중문화
과학기술	우주과학/지리·지구과학/의료/인쇄/전자기술
군사치안	근력무기/화약무기/장비/기차·표식/한국전쟁/해외파병/치안

3.2.8. 기타

이외 김보람(2015)은 성보박물관 소장품의 불전사물 목어(木魚)에 대해, 최은미(2020)는 철도박물관의 소장품 분류에 대해서 접근하였지만, 구체적인 분류체계를 제시하기보다는 실효성 부족 및 필요성만을 언급하였다. 문화유산 이외에도 자연유산, 무형유산에서도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자연유산은 신다솜(2019)이 자연사박물관, 무형유산은 정명철·이상영·김미희(2014) 농촌 무형유산에 대해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유산 등록 분류 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은 주로 조선시대 이전 시기의 문화유산 분류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박물관은 대부분 주제별 특성을 지닌 근·현대시기의 소장품으로 시스템에 분류·등록하기는 어려웠고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고자 2000년대 초 전문박물관의 분류체계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지적 문화유산 또한 주제별 특성과 대부분의 시기가 근·현대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근·현대 분류체계를 시도했던 타 전문박물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 정립 방안

4.1.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현황

지적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측량장비의 종류와 변천사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지적 분야에 관한 연구는 토지 정책, 기술에 관한 실험과 분석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적제도, 지적교육, 지적법, 지적 행정조직 등 문화유산 분류체계 시 참고 가능한 관련 연구도 있었다.

지적 문화유산과 직접적 연구인 지적측량 장비에 대해서 김추윤(2004)은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가

지 측량장비의 종류와 변천사를, 최윤수·송영준 (2006)은 조선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용한 측량기기를 중점으로 종류를 분류함으로써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측량장비의 종류와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유산으로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류는 없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4.2.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 제시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종합적인 분류체계가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국내 몇몇 전문박물관에서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옹기 문화유산의 대분류(기능별 분류)와 자물쇠 문화유산의 대분류기준이 맞지 않았다. 이것은 자물쇠의 특성상 단일 기능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결국 통일된 기준은 아니었다. 공예 문화유산의 경우 재질에 따른 분류에 그쳤으며, 민속 문화유산은 중분류에 기능과 재질이 혼재되어 있었다. 근대 건축 문화유산은 의식주를 대분류로 용도 기능을 중, 소분류로 제시하여 앞의 다른 문화유산의 분류기준과는 상이하였다. 산업 문화유산은 용도(기능)과 주제별 분류를 하였고 천주교 문화유산은 도서의 분류체계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각 전문 분야별 주제가 아닌 근·현대 문화유산을 종합하여 볼 수 있는 분류가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일 분류더라도 대, 중, 소로 분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분류방식은 혼재되거나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분류 방법은 옹기, 자물쇠, 민속은 용도(기능), 문양, 제작기법, 형태, 재질로 하나의 유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 의도로 분류하였다. 근대 건축은 의식주-근대 건축-사회·생활-용도(기능)별로, 산업은 용도(기능)으로 분류하였다. 공예는 공예를 만드는 인물의 기능 보유자, 천주교는 도서 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지적 문화유산은 기술적인 전문 분야이며, 제작 인물을 특정하지 않

는다는 점, 장비 제작이 아닌 장비로 산출된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민속아카이브와 근·현대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를 시도한 이전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근·현대 문화유산을 주요 소장품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등록 방법에 대해 담당 학예사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결과 통일된 기준은 없었다. 따라서 앞서 시도한 근·현대 분류에서 지적 문화유산과 유사한 산업 문화유산의 분류체계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용도/기능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주제별 분류체계를 병용하는 사용하는 방법을 따랐다.

대한민국 지적측량의 역사를 증거하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 정립을 정립하고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국토정보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지적 문화유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체계를 Table 6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소장품의 수량이 많은 비율은 장비, 문서, 지적공부 순서로 대부분 측량에 사용한 장비와 지적공부와 관련된 자료이다. 분류 방법은 대분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항목을 참고한 중분류 그리고 종류별 소분류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Table 6. Classification System for Cadastral Cultural Heritage

1단계 (대분류)	2단계 (중분류)	3단계 (소분류)
전문 교육	고유물	고문서, 지도
	지적공부	지적공부, 임야조사, 토지조사 관련 대장, 도면,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부속서류 등
	장비	측량장비, 제도장비
	문서 및 인쇄물	도서, 정기간행물, 문서, 인쇄물, 전단, 홍보물, 증서
	사진 및 영상물	사진, 슬라이드, 앨범, 필름, 디지털 파일(이미지, 영상, 음원)
	기념물	기념품

문화유산 수량은 국립민속박물관(2016)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여 독립하여 기능하는 개체의 수의 주수량과 자료를 파악하는 세부적인 수량인 부수량으로 구분하였다. Table 7과 같이 기능에 따른 수량과 보고를 위한 주수량 및 담당자의 관리를 위한 부수량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수량의 구분은 데이터 입력값으로 소장품 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Table 7. The criteria for quantifying Cadastral cultural heritage

명칭	정의(자료의 단위)	비고
건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소장품 하나의 단위	
점	독립되어서 기능하는 최소 단위	거의 대부분의 자료에 적용
쌍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기능하는 단위	귀걸이 1건 1쌍(부수량 2점)
조	여러 개가 하나의 세트 단위	인형 1건 1조 (부수량 2점)
벌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기능하는 단위	작업복 1건 1벌 (부수량 2점) 수저와 젓가락 1건 1벌(부수량 3점)
컬레	두 개가 같이 하나로 기능하는 단위	신발 1건 1컬레(부수량 2점)
짝	두 개가 하나로 기능하는 자료 중 하나가 손실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위	양말 1건 1짝

위에서 제시한 지적 문화유산 분류법을 적용하면 다음 Table 8의 예시와 같다.

Table 8.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Cadastral Cultural Heritage by Type

종 류		수 량	
중분류	예시	주	부
고유물	지도	1건 1점	.
지적공부	토지조사부	1건 1점	68쪽
장비	제도기 세트	1건 1세트	8점
문서 및 인쇄물	신청서	1건 1점	.
사진 및 영상물	사진첩	1건 1점	100장
기념물	기념패	1건 1점	2점

분류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자료의 주제를 일련의 순서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면서도 특정 인물만이 지적을 측량하거나 결과물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과 지적 문화유산은 제작에는 전문적, 사용에는 교육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타 박물관 소장품이 제작 방법과 사용 의도, 제작자 등 용도의 기능적인 측면과는 다른 면에서 대분류를 전문, 교육으로 구분하고 중분류에서는 지적 사용품과 산출물에 따른 특성별 구분하였다.

5. 맺음말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기본은 문화유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분류 방법과 지적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내 근·현대 문화유산 전문 분야별 분류체계의 경우 옹기, 자물쇠, 민속, 근대 건축, 산업, 천주교 등의 시도는 이루어졌으나 일부 연구자료만 검토하거나 분류체계를 모호하게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정보의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전문박물관의 문화유산에 대한 향후 체계

마련 및 연구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 정립은 문화유산의 학문과 산업 그리고 행정을 연계하여 포괄할 수 있게 된다. 국외의 주제별 전문 분야의 분류와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 방법에 대한 사례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관리 환경 구축과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적·사회문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지적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여주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지적 문화유산 분류체계는 연구자료 검색, 기획, 교육 자료 등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토정보의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주1. 올해 5월부터 「국가유산기본법(시행 2024. 5. 17.)」에 의해 '문화재'가 '국가유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문화재라고 말하는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이다.
- 주2. 지적 용어의 처음 사용에 대해서 원영희는 1908년, 송영준은 1878년, 류병찬은 2006년 1895년으로 주장하였으나 2009년 1700년대 초로 주장.
- 주3. 몸에 걸치거나 입혀져 신체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의류 및 장신구, 또는 이를 보관하는 도구.
- 주4. 식재료를 가공·조리하여 담거나 저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 주5. 전통적인 양식과 구조를 가진 전통건축과 이를 구성하는 건축부재 및 가옥내부에서 사용되는 생화용구.
- 주6.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특정 재화를 창출하기 위해 공정 중에 사용되는 도구.
- 주7. 사람과 물자, 정보의 위치적 이동을 위한 운송 매체와 이를 구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부속.
- 주8.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측정, 기상관측, 성좌관측, 지리연구, 의료, 인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
- 주9. 현대 의학기술을 활용한 진료, 치료, 제약, 보관 등의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도구와 장비 및 약재.
- 주10.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과 관련하여 근현대 과학기술의 성과가 집약된 결과물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장치나 부품.
- 주11. 정보를 전달·전송 또는 축적하는 매체로서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 자체가 중요하며 정보의 기술적 이동이라는 통신의 개념 정의와 구분.
- 주12. Computer Interchange of Museum Information (CIMI)는 국제 박물관에 메타데이터 산업표준 채택의 개념을 1990년 고안하여 2003년까지 운용되었다. 박물관 메타데이터 응용과 연구에 미친 영향이 크다.

참고문헌

References

- 구본태. 2018. 산업유산을 활용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활용방안 - 동산문화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p. 40-48.
- Koo BT. 2018. *A study on methods of assembling and utilizing of museum collections comprising industrial heritages : focusing on movable cultural properties* [Thesis]. University of Korea. p. 40-48.
- 국립민속박물관. 2016. 민속아카이브 자료관리 매뉴얼.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16. *Folk Archive Material Management Manual*.
- 김보람. 2015. 소장품 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사찰 성보박물관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 77-80.
- Kim BR. 2015. *A study on way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temple holy book museu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on management system*[Thesis]. University of Kyung Hee. p. 77-80.
- 김성태. 2018. 한국 천주교 자료의 분류체계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p. 71-74.
- Kim ST. 2018.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Plans for the Materials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Dissertation]. National University of Gongju. p. 71-74.
- 김정신. 2013. 사례조사를 통한 근대 동산문화재의 분류체계 연구 - 총체적 분류와 천주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교회사학. 10:165-202.
- Kim JS. 2013.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Modern Dongsan Cultural Properties through Case Study - Focusing on the Overall Classification and Catholic Cultural Heritage.

- Research journal of Catholic church history.* 10:165-202.
- 김추윤. 2004. 지적측량 장비의 변천. *지적(地籍)*. 34(4):48-81.
- Kim CY. 2004. Transformation of cadastral surveying equipment, *Journal of Cadastre* 34(4):48-81.
- 김해희. 2012. 역사민속계 박물관의 유물관리에 관한 연구 - 강원 영동지역 역사민속계 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p. 69-75.
- Kim HH. 2012. *A study on collection management of historical folklore museum*[Thesis]. University of Chung-Ang. p. 69-75.
- 김해경. 2003. 전문 박물관 소장품 분류의 제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 51-70.
- Kim HG. 2003.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for specialized museums*[Thesis]. University of Kyung Hee. p. 51-70.
- 류병찬. 2009. '지적(地籍)'이란 용어의 사용연혁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지적(地籍)*.39(1):45-58.
- Ryu BC. 2009.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Term "Cadastre" - Focused on Choson Dynasty Period. *Journal of Cadastre*. 39(1):45-58.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 9-1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3. *2023 National Overview of Cultural Infrastructure*. p. 9-17.
- 신다솜. 2019. 자연사박물관의 소장품 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p. 37-42.
- Sin DS. 2019. *Improvements to the information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of the natural history museum*[Thesis]. University of Kyung Hee. p. 37-42.
- 위주영. 2010.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현황과 과제 - 공예기술을 중심으로. *인문학콘텐츠*. 17:499-531.
- Joo JY. 2010.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tadata - focusing on craft technology. *Humanities Content*. 17:499-531.
- 이법관, 김상민. 2010. 지적학술용어의 표준화 방향에 관한 연구. *지적(地籍)*. 40(2):235-246.
- Lee BG, Kim SM. 2010.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Science Terminology. *Journal of Cadastre*. 40(2):235-246.
- 이영훈. 2002.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기능과 그 운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p. 39-44.
- Lee YH. 2002. *(A) Study on the collection Management Function and Management of the Museum*[Thesis]. University of Kookmin. p. 39-44.
- 이정수, 양승희. 2015. 근대 건축 및 시설물 문화유산 분류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6333-6344.
- Lee JS, Yang SH. 2015. (A)Study on the Classification Guidelines of Modern Culture Heritages in Building and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333-6344.
- 이혁진. 2009. 박물관메타데이터 표준프레임워크 CIMI가 남긴 유산과 영향력. *정보관리학회지*. 26(2):83-103.
- Lee HJ. 2009. Legacy and Impacts of the Computer Interchange of Museum Information (CIMI).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6(2):83-103.
- 정명철, 이상영, 김미희. 2014. 세계농업유산 지정기준에 따른 농촌 무형유산의 분류체계 설정.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182-182.
- Jeong MC, Lee SY, Kim MH. 2014.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Rural Intangible Heritage according to GIAHS.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182-182.
- 정성욱. 2006. 국내 역사계박물관의 소장자료 분류체계와 수장고 분류방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5(2):138-149.
- Jung SW. 2006. Classification System of Collections and Distribution of Storages in Domestic Museum of Historic Relic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5(2):138-149.
- 조운정. 2001. 박물관을 위한 소장품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p. 16-54.
- Cho YJ. 2001. *(A) study on construction of collection management system for a museum*[Thesis]. University of Yonsei. p. 16-54.
- 최윤수, 송영준. 2006. 조선토지조사사업에 사용한 측량기에 대한 고찰. *지적(地籍)*. 36(1):130-155.
- Choi YS, Song YJ. 2006. A Study on the Surveying Equipment Used by Korean Land Survey Project circa 1910. *Journal of Cadastre*. 36(1):130-155.
- 최윤수, 송영준. 2006. 지적측량에 사용한 측량기에 대한 고찰. *지적(地籍)*. 36(2) :185-204.
- Choi YS, Song YJ. 2006. A Study on the Surveying Instruments used in Cadastral Surveying. *Journal of Cadastre*. 36(2) :185-204.
- 최은미. 2020. 철도문화유산 보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 철도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통대학교. p. 81-86.
- Choi EM. 2020. *Study on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onservation of Railroad Cultural Heritage : Focusing on the Collection of Railroad Museum*[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p. 81-86.
-
- 2024년 05월 06일 원고접수(Received)
 2024년 05월 20일 1차심사(1st Reviewed)
 2024년 06월 08일 2차심사(2st Reviewed)
 2024년 06월 24일 게재확정(Accepted)

초 록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 기본은 국가유산(문화재)으로 국가유산에서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고유성, 정체성, 생활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이다.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소장한 문화유산)이 그 기관에 대한 고유 특성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을 학문, 산업, 행정에 연계하여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 소장품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현대 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시스템의 주제 분류 편년이 조선시대 이전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국토정보에 맞는 문화유산 분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 용어가 처음 사용된 근대를 기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LX국토정보박물관에 소장된 지적 문화유산 소장품을 중심으로 지적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지적 문화유산은 전문적인 기술 분야이면서도 특정 인물만이 지적을 측량하거나 결과물을 제작하지 않는다는

점, 제작에는 전문적이면서도 사용 시 교육적 측면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다른 전문 박물관 소장품이 제작 방법과 사용 의도, 제작자 등 용도의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류한 것과는 다르게 분류 방법을 지적 사용품과 산출물에 따른 특성별 구분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항목을 참고하여 대, 중, 소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개념을 범주화하고 자료의 주제를 일련의 순서로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것으로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직접적으로는 지적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관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활용도에서는 소장품에 대한 학술적·사회문화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토정보 연구 자료 검색, 전시 기획, 교육 자료 등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토정보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자원 콘텐츠 활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지적문화유산, 문화유산, 분류체계, 박물관, LX국토정보박물관